

# 시간 멈춰버린 천년암자엔 수행 가풍만이

## 작은 암자를 찾아서

### ① 완주 태조암



작은 불상을 모신 법당이 고졸미를 자아낸다.

1675년 조선시대 위봉산성과 함께 건립  
19세기 말경 조성된 만불탱화 일화 유명  
조선불교 초대교정 박한영 스님 출가사찰

전북 완주 태조암(太祖庵)은 지금은 위봉산이라 불리는 주출산 정상인 되실봉(524m) 아래 위치해 전주 시내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굽어보고 있다. 예로부터 되실봉을 중심으로 위봉사쪽에 비가 내리면 위봉폭포로 흘러가고, 태조암쪽에 내리는 비는 송광사앞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태조암이 창건된 것은 1675년 위봉산성이 축성될 때다.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전주 경기전에 보관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조경묘의 전주 이씨 시조 위패를 피신시키기 위해 쌓은 위봉산성안의 행궁과 함께 태조암도 창건됐다.

실제로 조선말(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 전주부성이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자 태조어진과 위패가 태조암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그래서 산자락 아래의 위봉사를 에두르는 산줄기 전체가 성곽을 이루고 있다. 위봉산성은 거의 허물어져 일부를 제외



전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태조암에는 법당과 요사채만 있어 산속 작은 암자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하고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행궁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태조암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랜 역사를 견견히 이겨내고 있다.

태조암은 창건당시 행궁 수호사찰이었지만 지금은 비구니 선원을 운영하는 위봉사의 산내암자로 오롯이 수행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송광사방면에서 휘돌아 굽어오는 3km 정도 뱀재(위봉재) 정상에 위치한 위봉산성에서부터 태조암 오르는 길이 시작된다. 송광사 방면에서 오르는 고갯길은 뱀재지만, 위봉사 방

면서 오르는 길은 무주령(無主嶺)이다. 이는 주인없는 고갯길이란 뜻이다. 같은 고갯길이 두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흥미롭다. 고개 정상에 오르면 원형만 남아 있는 위봉산성 서문 앞 길가에 차를 세워 두어야 한다. 이 곳에서부터 찾길 이 없고 임도를 따라 30분 걸여 올라야 태조암이 보인다. 이정표는 0.97km를 알려주지만 몸이 느끼는 체감거리는 훨씬 길다. 그만큼 가파르다.

암자를 오르는 길은 역시 숨을 몰아쉬며 걸어야 제격이다. 하늘을 뒤덮은 울창한 숲이 이끄는 대로 걸어 올라야 제 맛이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인적없는 울창한 숲 그늘 산성길을 홀로 걸다보면 어디선가 불꽃 옛 병졸이 되어나올 것같은 착각이 빠진다. 그 옛날 전란에 대비해 쌓은 성곽이란 말이 실감난다. 태조암을 오르자 사람은 없고 수백년은 족히 돼보이는 느티나무가 객을 반긴다. 장마철 번덕스런 비를 맞고 간신히 도착한 태조암은 전주시내가 한눈에 들어 올 정도로 멋진 풍광이다.

## 주변 둘러볼만 한 곳

### ■ 위봉산성 (사적 471호)

전북 완주의 위봉산(524m)에는 유사시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태조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조선조 숙종 때에 축성된 위봉산성이 있는데, 산자락 아래의 위봉사를 에두르는 산줄기 전체가 성곽을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 변란을 대비하여 주민들을 대피시켜 보호할 목적으로 협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숙종 원년(1675)~숙종 8년(1682)에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 둘레는 약 8,539m, 성벽 높이는 1.8~2.6m, 성 안 면적은 1백66만여㎡에 이른다.

관련 시설물은 성문 4개소, 암문지 6개소, 장대 2개소, 포루지 13개소, 추정 건물지 15개소, 수구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일부 성벽을 제외하고는

성벽 및 성문, 포루, 여장, 총안, 암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산성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사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행궁을 성 내부에 두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태조암과 함께 축성된 위봉산성 일구

### ■ 위봉폭포

위봉산성이 동문쪽에 있는 위봉폭포는 높이가 60m이며, 2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옛부터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폭포 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빼어난 경관을 이루며, 가까운 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웅지전적지(전라북도기념물 제25호)가 있다.

### ■ 위봉사

위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말사이다. 백제 무왕 5년인 604년 서암대사가 창건, 1359년(공민왕 8)에 나옹선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규모는 28동이었으며 암자도 10동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1911년에는 선교31본사의 하나로 전라북도 일원의 46개 사찰을 관할하였

으나, 여러 번의 화재로 인하여 지금은 그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다. 1990년에 위봉선원을 짓고 삼성각을 보수하였다. 1991년에는 나한전을 중건하고 일주문을 세웠다. 1994년에는 극락전을 건립하여 아마타여래상을 봉안하였으며, 2000년에는 범종각을 지었다. 조선말에 건축한 요사채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됐다.

### ■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는 발공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기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뒤편으로 펼쳐진 10만여 그루 편백숲은 1976년 박정희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2년여 전,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 '최종병기 활'이 개봉된 뒤부터다. 4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편백숲이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것이다. 숲을 둘러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등산로를 따라 578m 높여 봉, 570m 한오봉까지 올라가 능선을 타는 방법과, 6km 길이의 산책로인 임도를 걷는 방법이 있다. 또 지난해 주민들이 휴길로 만든 2km 남짓의 편백숲 오솔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 대아 수목원

산림휴양, 산림문화공간, 자연환경, 식물종의 다양성 확보를 바탕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1995년 개원했다. 155ha의 면적에 금강화 자생군락지와 산림문화전시관, 산림생태체험관, 분재원 등을 갖추고 있다. 산책로와 임도를 따라 올라볼수 있는 3개의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입장료는 무료다. (063)243-1951

#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O.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병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전임

#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